

신임 박광조 자문위원 체육분야 자문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제27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자문위원회(위원장 이보영)는 10월7일 오후6시30분 포천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신임자문위원 위촉 및 회의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문환 자문위원(경기가족·성상담센터소장)의 '성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이 자문위원은 강연을 통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 상식을 O X퀴즈를 통해 자세

하게 설명하고 성폭력 예방에 자문위원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광조 서울 화계중학교 운영위원장을 체육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앞으로 포천시 체육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기대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자문위원이 제시한 각각의 의견은 보다 상세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일시: 2008년 10월 07일 장소:



포천신문 자문위원회는 10월7일 오후6시30분 포천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호열 대표이사, 신임자문위원 박광조 위원, 이보영 운영위원장)

특별인터뷰 ... 윤석희 포천시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신도시 개발사업, 주민과 신뢰구축 후 추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장점 살려 에코디자인시티 개발

포천시가 10월6일 조직개편으로 대규모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직개편 중 눈에 띄는 포천시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은 포천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소로 알려져 있다. 전략사업추진사업소는 에코도시개발과 4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에코도시개발팀, 신도시개발팀, 미래교통팀, 관광진흥팀 등 포천시를 관광도시를 개발하는 핵심 사업소로 조직됐다.

에코도시개발팀은 에코도시개발사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도시개발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U-CITY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미래교통팀은 전철·철도·항공사업 및 BRT사업에 관한 사항과 광

역도로계획수립 및 유치업무를 맡는다. 관광진흥팀은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관광객 유치시책 개발추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 계획 추진,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개발 계획 추진,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단속 업무, 관광지 유치 홍보 기획 추진, 관광 수입증대 계획 추진, 관광 홍보물 제작 관리, 관광지 개발 사업 계획, 관광안내소 및 관광콜센터 신고센터 운영관리, 관광지 위탁관리 업무, 관광 행사 참가 관리등 관광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포천시 전략사업추진사업소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윤석희(사진) 서기관으로부터 사업소 업무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취임소감은?

현재 해당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략사업으로 선정해서 포천시 발전에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함께 갖고 있다.

▶팀장 및 팀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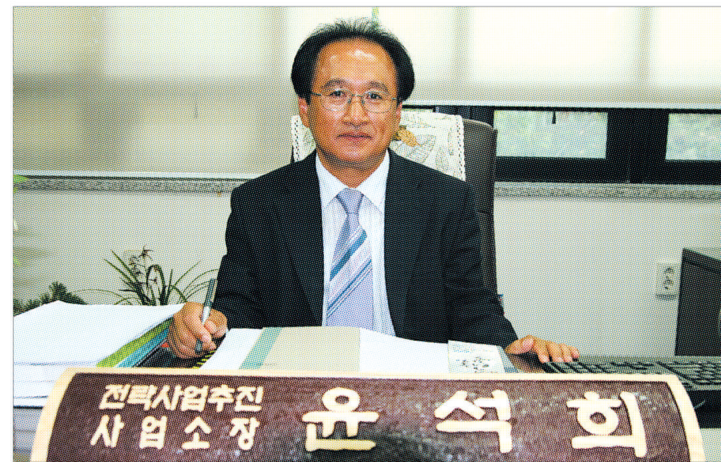
내정된 후에 확인이 가능했다. 인사 부서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와서보니 인적자원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 같다. 만족한다. 이런 여건에서 포천시가 목표하는 전략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도시개발 계획은?

고민거리다.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좀더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주민들과 우선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서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들이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한 상태에서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알려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 계획자체가 수정이 되는 형태로 되다보니 불신을 초래한 것 같다. 그것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구해야 될 것 같다.

▶미래 교통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철도유치사업을 들 수 있다.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사업 규모로는 발전이 어렵다. 2007년12월20일 철도기본계획이 정부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 포천시가 궁극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철도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포천시 전략사업추진사업소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윤석희 서기관으로부터 사업소 업무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들었다

▶에코도시개발 계획은?

포천시를 관광휴양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가장 관광업이조건의 좋다. 기존의 관광단지 개념이 아닌 휴양도시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꼭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지난해말 롯데관광, 삼성물산, 포천시, 경기도, 경기관공공사, 우리은행, 영국의 레드우드 투자회사 등이 만나 체결한 에코디자인시티개발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유리한 조건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미군공여지관련 특별법으로 포함시킨 것도 다행스럽다.

▶관광진흥업무는?

꿈과 비전을 할 수 있는 관광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당면과제로 11일부터 실시하는 제12회 산정호수 명성산 연세꽃 축제다. 연이평의 여재밭이 자아내는 늦가을의 풍경을 장관인 포천시 명성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지역의 구석구석을 밀도 있게 파악하여 소식을 전해주는 포천신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포천시의 발전상, 나아가야 할 방향, 시장분야 등을 명확하게 보도하여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달라. 전략사업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계획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 포천신문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한다.

김연택 기자 best114@paran.com

식물과사람 ⑩ 물매화(Parnassia palustris)

가을에 내린 하얀 눈꽃송이

한 뼛 정도 올라온 꽃줄기 끝에 청초하고 고매한 매력을 풍기는 하얀 꽃이 암석 위 연못주변에 피어났다. 마치 아이스크림을 떠놓은 것 같은 꽃봉오리가 함참동안 기다리게 하더니 드디어 예쁘게 피어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종소명인 'palustris'는 '늪지에 나는(沼地生)'이라는 뜻으로 자생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물매화는 산기슭 양자쪽의 습지나 고산지대에 많이 나는데, 동의나물(Caltha palustris var. palustris)이나 산부채(Calla palustris) 등 'palustris'가 쓰인 식물은 대부분 늪이나 습지에 자란다. 이같이 학명은 라틴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생지나 일의 모양, 꽃의 색 등 그 식물 종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매화의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꽃밥이 달린 수술(stamen) 이외에 헛수술(staminode)을 가지고 있는데 손바닥모양으로 끝이 12~22개로 갈라지고 끝에 작은 공모양의 '꿀샘' 달려 있다.

물매화는 가을에 꽃이 지고 난 뒤 여문 씨앗을 바로 뿌리면 봄에 발아한다. 이때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습도를 잘게 잘라 충분히 적신 후 그 위에 씨를 뿌리면 발아율을 높일 수 있다. 발아한 후에도 생장속도가 매우 더디기 때문에 꽃이 피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봄이나 가을에 분주하여 번식하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제외한 식물체 전체를 매화초(梅花草)라는 약재로 쓰며 종기·급성간염·맥관염에 효과가 있다. 요즘은 압화(押花, Presse flower)의 재료로 사용되는데 백색의 꽃이 아름답고 꽃줄기를 감싸는 잎도 퉁퉁글글하니 잘 어울려 식물체 전체를 말리는 것도 예쁘다.



손자은
 향약식물원 기본관리팀
 문의: 031-531-7750

紙上갤러리 ⑩ 그림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상징

강철기의 '시들지 않은 꽃'

와당이 과거에서 새로움을 찾아가는 길이며 반복적 행위에서 생각을 쌓아가기보다 버리는 즉 마음에 드리워지는 상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면 꽃의 피어남은 현재로서 과거와 현재의 시점을 동일화 하고 있다.

그러기에 강철기의 꽃은 자신의 심상에서 완성되기에 세계의 칼라를 담아 간혹은 종교적 색상으로 승화하기도 한다. 이점은 작품제작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1차 수성 안료위에 오일표현을 한 후 그 위에 다시 수성물감으로 완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바람의 회화적 표현과

선묘에 의한 디자인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과거와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진득함과 산뜻함, 깊이와 열은 면을 동시에 성취하려는 기법적인 탐구와 정신의 합일로, 기술과 정신을 일심(一心)으로 발현하여 조화하려는 작가적 열망을 담고 있다.

원형의 문고리를 잡아 찢히면 수평과 수직이 교차하는 창살을 통해 죽음과 삶이 이루는 환상의 먼 고향이 몽환적 신비감으로 빛의 닦을 내리게 한다. 그 닦 위에 영원히 시들지 않을 꽃! 생명, 자비, 사랑...

글/ 김구원(화가, 계간비질주간) (017-317-5731)



작품명: 마주보기 Facing Each Other. Mixed media, 2008

©한국규격 KS표시 허가업체 콘크리트 제품 제조/판매 ISO 9001:2000 / KSA 9001:2001

www.kodanconc.co.kr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단콘크리트



대표이사 박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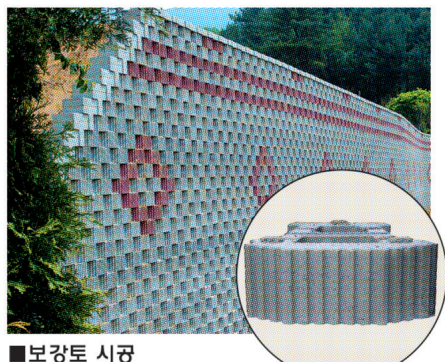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2004년 1월 창업 이래 벽돌, 블록, 보강도 블록, 항도 블록, 우·오수맨홀, 수로관 및 벤치 돌출관을 생산하면서 자동화 설비를 완비하고 규격화된 K.S제품을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객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속에 제2의 창업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끊임없는 기술 변화에 대응코자 임직원 모두 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제1의 경영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정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코단콘크리트 전경



■보강도 시공



■보강도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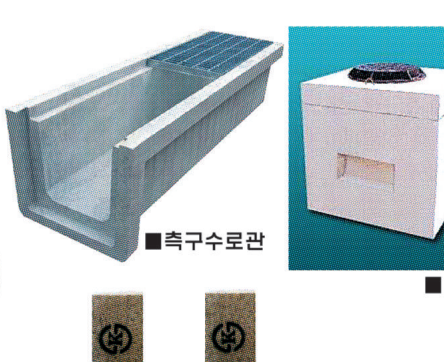
■축대블록 시공



■호안블록 시공



■항도블록 시공



■흑구수로관

■맨홀

KD 코단콘크리트(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440-1
 전화: (031)531-4850-1 팩스: (031)531-4852

■콘크리트 벽돌